

뉴스 라운드업

- 미국 대캐나다 섹션 338 관세(50%) 토요일 발효, 캐나다는 9월 8일부터 철강·유제품 등에 보복관세 예고
- 미국 재무장관, 이란에 '역대급' 추가제재 예고하며 오늘 오후 브리핑 예정, 이란은 강경대응 시사
- 달러인덱스 98.84로 3개월래 최저권, 금값은 사상 최고치 경신(4,602.66 달러, +1.86%)
- 미 서비스업 체감경기 호조에 뉴욕 3대지수 금요일 동반 상승, VIX는 15.14로 급락(-5.5%)

캐나다발 관세 전쟁과 이란 제재 예고로 지정학 리스크가 재점화된 가운데, 약달러 속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마찰이 주말 사이 다시 격화됐다. 미국은 지난 토요일 0시(현지시간)부터 특정 캐나다산 품목에 대해 통상법 338 조에 근거한 50% 관세를 발효시켰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에 맞서 9월 8일부터 철강·유제품 등 여러 업종에 걸쳐 대미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미국측이 마지막 순간 자동차 관세와 캐나다의 제 3국 무역협상 제한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미 무역대표부(USTR)도 캐나다와의 추가 협상 일정이 없다고 확인해 양국 협상은 사실상 결렬 상태로 넘어갔다. 이 소식은 지난 금요일 아시아 증시 마감(코스피 +0.88%, 항생 +1.21%, CSI300 +0.57%, 닛케이 -0.30%) 이후에 나온 만큼 아직 아시아 시장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늘 개장에서 반응이 확인될 전망이다.

지정학 리스크는 이란을 둘러싸고도 고조되고 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추가 제재를 예고했고, 세부 내용은 오늘(월요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란측은 파괴적인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했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축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난 일요일 두바이·아부다비 등 걸프 지역 증시는 유가 상승 기대를 반영해 대체로 강세로 마감했다. 다만 국제유가(WTI)는 지난 금요일 마감 기준 배럴당 87.06 달러(+0.26%)로 상승폭이 크지 않아, 시장이 아직 실제 제재 강도를 관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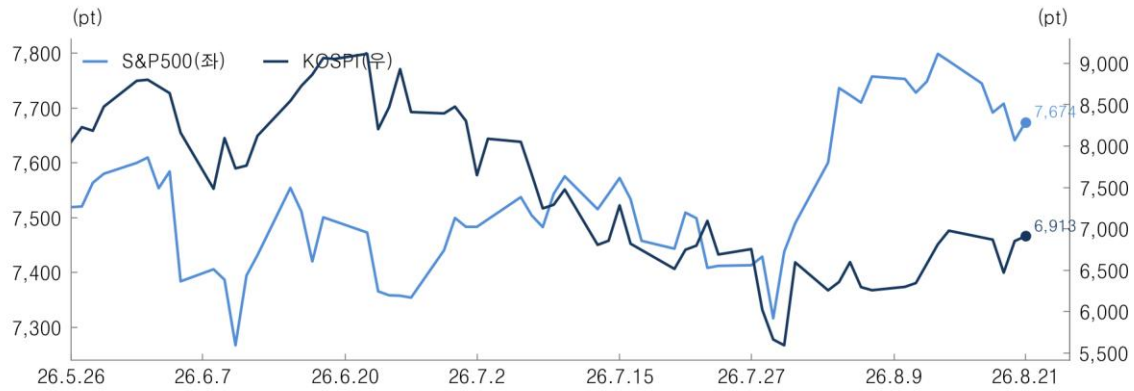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달러화는 미 재무부의 장기국채 바이백 확대 계획에 대한 우려로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밀렸다. 달러인덱스(DXY)는 98.84로 마감했고, 엔화는 일본의 인플레이션 가속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약달러 흐름 속에 금값은 온스당 4,602.66 달러(+1.86%)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구리도 1.82% 올랐다. 한편 미국 서비스업 체감경기(S&P 글로벌 서비스업 PMI)가 2024년 12월 이후 최고인 56.8까지 뛰어오르며 3분기 성장을 가속 기대를 뒷받침했고, 이는 지난 금요일 뉴욕 3대지수 동반 상승(S&P500·나스닥 +0.43%, 유럽 STOXX600 +0.59%)과 VIX 급락(15.14, -5.5%)으로 이어졌다. 다만 같은 날 미국 10년물 금리는 4.736%(+2.8bp), 2년물은 4.240%(+5.0bp)로 함께 올라, 견조한 경기 지표가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연방기금 선물은 9월 회의에서 동결 우세 속 인상 확률도 39%까지 반영)을 다시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 지표와 위험자산 가격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미 하이일드 크레딧 스프레드는 275bp로 오히려 소폭 확대(+2.0bp)돼, 추가·변동성 지표와 신용시장 사이의 온도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존 하우스 시각과 궤를 같이 한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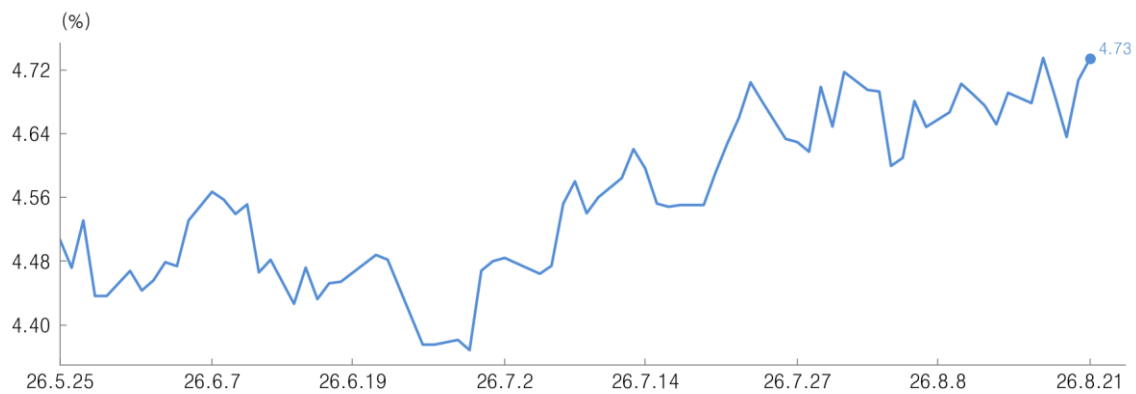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674.37	+0.43%	8/21 종가
	나스닥	26,180.45	+0.43%	8/21 종가
	STOXX 600	654.19	+0.59%	8/21 종가
	닛케이 225	66,016.14	-0.30%	8/21 종가
	CSI 300	4,618.90	+0.57%	8/21 종가
	KOSPI	6,912.95	+0.88%	8/21 종가
	항셍	26,009.46	+1.21%	8/21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8.84	-	8/21 종가
	달러/엔	158.87	-0.06%	8/24 종가
	유로/달러	1.17	-0.01%	8/24 종가
	달러/원	1,385.89	-0.01%	8/24 종가
	달러/위안	6.72	-	8/24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736%	+2.8bp	8/21 종가
	미국 2 년	4.240%	+5.0bp	8/21 종가
	일본 10 년	2.884%	+2.1bp	8/21 종가
	독일 10 년	3.261%	+0.6bp	8/21 종가
	한국 10 년	4.414%	+8.0bp	8/21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75bp	+2.0bp	8/20 종가
원자재	WTI	87.06	+0.26%	8/21 종가
	금	4,602.66	+1.86%	8/21 종가
	구리	6.59	+1.82%	8/21 종가
변동성	VIX	15.14	-5.49%	8/21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23 건 HIGH	• 캐나다, 미국 50% 관세에 9 월 8일부터 보복 관세 시행 ↳ 카니 총리, 어제 공식 성명에서 미국이 지난 토요일 자정부터 발동한 50% 관세에 대응해 9 월 8일부터 강철·유제품 등 다양한 산업 대상 보복 관세 시행한다고 발표 ↳ 협상 결렬: 미국의 자동차·전략산업(강철·알루미늄) 제한 및 타국 무역거래 제약 요구 등 최후 변경안 수용 거부, 카니: '미국이 제의한 바를 수락할 수 없다' 표명 ↳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지난 토요일): 캐나다의 최종 무역 협정 체결 거부로 협상 교착 상태 지적 • 글로벌 주식 주간 최대 낙폭, 달러 약세에 캐나다 광산주만 강세 ↳ 글로벌 시장: 국채 수익률 반등, 걸프 외교 교착으로 유가 4 주 고점 도달하며 인플레이션 우려 상존 ↳ 달러 약세 심화(주간 손실, 주요 통화 대비) → 고금리 통화 매력 회복으로 캐리 트레이드 부활 ↳ 캐나다: S&P/TSX 0.7% 상승, 금값 상승 주도로 광산주(소재업종) 5 개월 고점 경신 • 캐나다 6 월 소매판매 +0.6%, 예상 상회하며 의류·잡화 부문 견조 ↳ 6 월 소매판매 C\$742.8 억(약 \$540 억, 전월 대비 +0.6%), 애널리스트 예상(+0.4%)을 0.2%p 상회 ↳ 업종별: 9 개 부문 중 7 개 증가(전체 판매의 72.3%), 의류·잡화 소매점 주도, 물량 기준 +1.5% ↳ 7 월 전망: -0.8% 둔화(통계청 선행 추정) • 싱가포르, 중국산 물품 우회수입 등 관세 회피 조사 강화 ↳ 미국 정부 추정, 중국산 물품을 3 국 경유로 우회 수입하며 연 \$190~260 억 관세수입 손실 ↳ 싱가포르 총리 웅(어제): '싱가포르를 불법 거래 통로로 용납하지 않겠다', 강제노동·관세 회피 행위 조사 강화 추진 ↳ 제약: 거대 무역 규모를 감안한 현실적 접근 필요 • 파나마 운하, 엘니뇨 재강화로 가뭄 위험, 일부 선박 이미 아프리카 우회 ↳ 배경: 2 년 전 사상 최악 가뭄으로 통행 지연·입찰 경쟁 심화, 현재 엘니뇨 강화로 강수량 감소 우려 ↳ 현황: 배수지 수위 감소로 통행 일정 차질 우려, 일부 선박이 이미 아프리카 경유 우회 노선 선택 ↳ 파나마 운하청: 통행 충분성 보장 약속 완화 추진 중 • 이스라엘 정착촌 거주자 총기 사용, 팔레스타인 청소년 사망 ↳ 사건(지난 금요일): 서안지구 사이르 마을 진입 유대인 정착민 보호원의 발포로 17 세 청소년 사망, 70 세 노인 부상 ↳ 이스라엘군: '승인되지 않은 등산' 표현, 팔레스타인은 정착민 진입을 위협 행위로 규탄
미국 뉴스 47 건 HIGH	• 미국 이란에 '역대 최강' 제재 오늘 발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량 절반 감소 ↳ 베센트 재무장관, 오늘 오후 2 시(미 동부시간) 기자회견 예정, 제재 상세 내용 공개, 이란 측은 보복이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 ↳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 급감(지난 목요일 7 척, 전날의 절반), 테헤란 상인들은 인플레이션·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이어 추가 제재로 경제 악화 우려

권역	요약
	• 미국-캐나다 무역협상 결렬, 캐나다 수입품 50% 관세 지난 토요일 발동 ↳ 집중 협상 3 일차(금요일) 진행에도 캐나다가 타결 거부, 미국 무역대표 그리어의 발표로 협상 불가능 상황 확인, 향후 협상 일정 없음 ↳ 자동차 관세 감면을 놓고 양측 입장 벌어짐 — 캐나다는 미국 제안보다 큰 규모의 감면을 원했으나 미국이 거절 • 달러 3 개월 저점, 신흥시장 통화 사상 최고치…미 재무부 국채 매입 확대 우려 ↳ 베센트 재무장관의 장기 국채 매입 확대 가능성 발표가 달러 약세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지시가 아닌 베센트의 자체 판단이라고 명확히 함 ↳ 신흥시장 통화 8 주 연속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MSCI EM 통화지수), 미국 국채 수익률·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달러 주도, 한국 원화도 11 개월 고점 • 미국 서비스 부문 강세, 3 분기 성장률 3% 추정 상향…제조업은 5 개월 저점 ↳ S&P Global 집계: 서비스 섹터 PMI 56.8(2024 년 12 월 이후 최고) — 3 분기 연환산 성장률 3% 추정(2 분기 1.5% 대비 대폭 상향) ↳ 제조업 PMI 53.2 로 5 개월 저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재고 감축·공급망 차질이 제조업 부진 배경
유럽 뉴스 21 건 HIGH	• 무디스, 아일랜드 신용등급 Aa2 로 상향, 재정 회복력·제도 역량 인정 ↳ Aa3 에서 Aa2 로 한 단계 상향, 긍정 전망 유지 ↳ 강한 제도적 기반·효과적인 정책 입안·미국의 무역·세제 정책 변화에 대한 충격 흡수력을 평가 근거로 제시 ↳ 외국인직접투자(FDI), 예전 평가보다 더욱 강하고 지속성 있는 경제·재정 이점 창출 • 유럽 중앙은행(ECB)·스위스 중앙은행(SNB), 매파적 신호 강화 — 인플레이션·AI 물가 우려 ↳ ECB 9 월 금리 인상 후 2027 년 말까지 기준금리(예금금리) 3% 근처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 베팅 증가, 유로존 중립금리 추정치도 2.8%로 상향 ↳ SNB 이사회 위원 Tschudin, AI 투자 집중으로 인한 반도체 등 물자 부족이 단기 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 경고 ↳ SNB 의 필요시 마이너스 금리 인하 준비 강조 및 현 인플레이션 전망이 향후 3 년간 금리 현 수준 유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명시 • 영국 서비스 PMI·소비자신뢰도 강세, 유로존도 심리 개선 ↳ 영국 8 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52.8 로 시장 예상(51.8)을 상회, 최근 6 개월 최고 ↳ 영국 Gfk 소비자신뢰도, 2 년 만에 최고 수준 회복 ↳ 유로존 8 월 소비자신뢰도 -15.5(7 월 -15.9), 로이터 설문 예상(-16.3)을 상회하며 0.4 포인트 개선 • 독일 10 년물 채권 수익률 상승 기조 지속, 미국 개입의 효과 제한적 ↳ 독일 10 년물 수익률 3.2572%, 주간 약 6bp 상승, 15 년 이래 최고 수준 근처에서 상승 추세 지속 ↳ 독일 30 년물 수익률 3.7669% ↳ 미 재무부의 장기채 매입 공시도 유럽 채권 낙폭을 일시적으로만 제지, 유로존 전체의 물가·재정 우려 근본적 해소 미흡 • 파운드, 영국 성장·연준 약화 반영해 6 개월 최고 경신 ↳ 파운드, 4 주 연속 주간 상승으로 1.3675 달성, 2 월 이후 최고 기록

권역	요약
	↳ 영국 서비스 PMI 예상 상회·소비자심리 개선 등 성장 신호와 연준의 약화된 금리 인상 베팅, 미국 Treasury 의 장기채 재매입 정책 발표의 복합적 영향 ↳ 기술적 지지 수준 1.3630(수요일 고점), 1.3619 • 독일, 성장 개혁 추진, 노르웨이 2027 년 우크라이나 92 억달러 지원 ↳ 메르츠 독일 총리, 다음주 내각 워크숍에서 사업체 부담 경감·성장 개혁의 신속 이행을 장관들에게 촉구 ↳ 노르웨이 정부, 2027 년 재정년도 우크라이나 지원금 850 억 노르웨이 크로네(약 \$92 억) 배정, 2026 년 수준 유지 ↳ 스티레 노르웨이 총리 및 북유럽·발트해 지역 지도자들, 일요일 키예프 방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대한 지역 연대 표현, 지원금은 군사·인도주의 양쪽 배분 •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세 요구 고조, 유럽 주식 주간 낙폭 ↳ 독일 니더작센 CDU 주 의장 Lechner, EU 의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관세 신속 부과 촉구 ↳ OECD 통계 인용하여 중국 제품의 해외 시장점유율 60% 이상이 중국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다며 국제 무역 규칙 위반 주장 ↳ STOXX 600 금요일 +0.59% 상승했으나 주간 낙폭 기록, 유가 상승·미국 채권 수익률 인상이 인플레이션 우려 강화
인도 뉴스 7 건 HIGH	• 인도중앙은행(RBI), 정책 기조 매파적 전환 신호로 국채 주간 최악 성적 기록 ↳ 정책회의록에서 금리인상 강화 의지 시사, 해외 거주 인도인(디아스포라) 예금 해징 시설 조기 폐지로 통화 긴축 신호 가중 ↳ 국제유가(브렌트유), 60 일 미국-이란 잠정협정 만료 영향으로 2 주 연속 +6% 상승해 배럴당 \$93.4 기록, 유가 수입국인 인도의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 • 인도 외환보유액 7 주 연속 증가로 약 \$7.17 조 기록, 6 개월 최고 수준 도달 ↳ 중앙은행의 국제수지 강화 정책 조치로 자본유입 확대, 주간 약 \$100 억 증가 ↳ 구성: 외화자산 + \$72 억, 금 보유액 + \$27 억 • 인도 루피 유가 상승 압박으로 주간 약세, RBI 개입으로 96 심리선 사수 ↳ USD/INR 주간 -0.3% 하락, 95.69 로 마감 ↳ 중앙은행의 빈번한 시장 개입으로 급락 제어, 2 주 실현변동성 하락 추이 • 인도 주가지수 유가·글로벌 채권수익률 상승 압박으로 주간 하락 ↳ Nifty 50 주간 -0.5% (금요 마감 24,252), BSE Sensex 주간 -0.6% (금요 보합 마감 77,540.83) ↳ 중동 갈등으로 유가 급등·글로벌 채권수익률 상승 → 차입비용 인상·해외 자금유입 둔화 연쇄 • 인도, 인접국 투자자 대상 FDI 자동 진입 경로 신규 활용 본격화 ↳ 중국 포함 육지 인접국 투자자에게 비지배 지분(최대 10%) 보유 허용하는 자동 진입 경로 도입 ↳ 현재까지 29 건 489.5 억 루피(약 \$5.115 억) 규모, IT·AI·제조·제약·데이터센터·수송 등 분야별 진출
EM 기타 뉴스 13 건 HIGH	• 에티오피아 10 억달러 유로본드 채무 재조정, 공식채권단 호의적 평가 획득 ↳ 지난 금요일, 중국·프랑스 공동의장의 공식채권단으로부터 유로본드 재구조화 조건에 대한 형평성(Comparability of Treatment) 기준 호의적 평가 획득

권역	요약
	↳ 민간채권자와의 예비협상 체결(지난 6 월)에 이은 공식채권자 단계로의 진전 ↳ G20 공통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 이니셔티브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 • 터키 중앙은행 1 주 레포 경매 재개, 통화긴축 3 개월 만의 첫 완화 신호 ↳ 어제(23 일) 공식 발표, 이란 전쟁 시작(2 월 말) 이후 3 개월간 중단했던 1 주물 레포 경매 운영 재개 ↳ 인플레이션 약 32% 수준에서 안정화됨에 따른 긴축 완화의 첫 신호 ↳ 레포 경매 중단 당시 야간 기준금리 40% 한도로 고정하며 통화 긴축을 강화했던 상황과의 대조 • 이란 제재 위협에 유가 반등, 미국-이란 신경전 심화 ↳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위협 발표, 지정학 프리미엄 재반영으로 유가 상승(브렌트유 배럴당 \$94.39, 금요일 마감) ↳ 미국과 이란의 감정적 메시지 교환 진행 중, 월요일(오늘) 새로운 미국 경제제재 공식 발표 예정 ↳ 걸프 지역 증시도 유가 상승에 힘입어 상승 마감 • 소말리아 해적 활동 급증, 올해 13 건 선박 피랍 ↳ 토요일 무장괴한 6 명이 아덴만 인근에서 에리트레아 국적 유조선 Sibul 1 호를 납치, 소말리아 방향으로 이동 ↳ 해당 선박의 이란 석유 수송 혐의(미국 제재 대상)에 따른 지정학적 민감성 고조 ↳ 올해 아덴만·소말리아 해역 선박 대상 공격 최소 13 건(2025 년 전체 5 건 대비 2.6 배 증가), 글로벌 해운 및 보험료 상승 요인 • 이집트 중앙은행 디지털 신원 플랫폼 규정 승인 ↳ 어제(23 일) 원격 고객확인·신원 인증 플랫폼 규정 공식 승인 ↳ Hassan Abdalla 총재: '온라인 계좌 개설 및 금융 서비스를 지점 방문 없이도 가능하게 할 것' ↳ 금융 포용성 확대 및 은행 디지털 인프라 현대화 추진의 일환 • 폴란드 신용등급 A- 유지, 재정 통합 부족으로 부정적 전망 지속 ↳ 지난 금요일 피치 평가사의 결정: 신용등급 A- 유지하나 부정적 전망 지속 ↳ 예산 적자 확대, 7 월 기준 141.1 억 즈위티(~\$38.19 억)로 6 월 123.7 억 즈위티(~\$33.48 억) 대비 증가 ↳ 2027 년 GDP 대비 6.7% 수준으로 OECD 기준(약 3%) 상회 예상, 재정 통합 부재가 주된 부정적 전망 요인 • 남아공 랜드화 2 월 이후 최강 수준, 금가격 반등이 주도 ↳ 지난 금요일 랜드화 달러당 15.9925 ZAR 로 강화되어 2 월 28 일(미국-이스라엘 이란 공격 시점) 이후 최강 수준 기록 ↳ 금값 3 개월 고점까지 반등으로 3 주 연속 주간 상승, 약달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회피수요 주도 ↳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 금의 가격 반등이 랜드화 강세 견인
중국 뉴스 2 건	• 약달러 기조 속 신흥국 통화 8 주 연승, 중국의 성장 지탱 재정지원 약속 ↳ MSCI 신흥국 통화지수 0.3% 상승, 미국 국채 수익률이 높아도 달러 약세 선호 ↳ 한국 원화 11 개월 만의 최고치 • 중국 대외투자 규제 개정, 투자자 권리 보호·해외 리스크 방어 강화

권역	요약
	↳ 국가발전개혁위(NDRC)가 초안 공개, 9월 20일까지 의견수렴 ↳ 기존 2018년 규칙에서 개인 투자자까지로 적용 범위 확대
일본 뉴스 2 건	• 일본은행(BOJ) 9월 인상 기대 강화하나 엔/달러는 미국 국채 수익률에 의존 ↳ 지난 금요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CPI)가 일본은행(BOJ) 9월 인상 시장 기대 강화, 시장 내재 인상 확률 약 66% (실제는 더 높을 것 추정) ↳ 엔화의 반응 제한적, 9월 인상 단독으로는 지속적 강세 견인 한계, 환율(USD/JPY) 158~159 범위 내 변동 ↳ 미국 국채 수익률이 환율 방향 결정,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와 선물 스프레드 축소로 상당 억눌림
브라질 뉴스 14 건	• 브라질-미국 관세 협상 재개 신호, 룰라-트럼프 통화 후 실무진 회담 추진 ↳ 룰라-트럼프 정상통화(8월 21일): 룰라는 협상 기반 해결 강조, 트럼프는 양국 실무진 회담 조속 추진 제의 ↳ 지난 7월 미국의 일부 상품 25% 관세 부과 이후 정상 간 첫 통화, 산업통상부장관 로사와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의 다음주 회담도 추진 • 룰라 정부, 10월 재선 공약으로 '재정 조정' 강조, 의무지출 삭감·세수 확대 추진 ↳ 재정부장관 두리강: 의무지출 감축·사회프로그램 효율화·세수 확대 추진, 저소득층 보호 전제 ↳ 이전 재정조정 안건 일부가 의회 미승인으로 진척 지연, 재정부는 '더욱 신속한 조정이 가능했을 조치들'이 존재한다고 시사 ↳ 공무원·군인연금 등 특권 제도 개혁 및 사회복지프로그램 효율화를 후속 과제로 지정, 최저임금과 의무지출 연동 해제안은 아직 미제시 • 라틴아메리카 자산, 달러 약세·상품가격 반등으로 주간 상승, 브라질 자산도 지난주 낙폭 회복 ↳ MSCI 라틴아메리카 주가지수 주간 +2.9%, 지역통화지수 +0.7% — 지난 2개월 최대 주간 상승률 기록 ↳ 미국 달러 약세 지속과 유가·금속 가격 반등이 신흥시장 자산 매수 재개 견인, 브라질 주식과 통화도 지난주 낙폭에서 회복
멕시코 뉴스 4 건	• 멕시코 연간 인플레이션 8월 초 3.30% 예상, 금리 동결 시나리오 강화 ↳ 7월 후반 3.14%에서 상승, 6월 중반 이후 최고 수준(설문조사 중간값) ↳ 2주 기간 물가상승률 +0.10% 예상, 월요일 통계청 공식 발표 대기 • 멕시코 경제부장관 에브라드, USMCA 검토 시 미국과 유리한 통상 결과 기대 ↳ 캐나다 협상 진전을 경쟁으로 보지 않으며, 자국 별도 협상 경로 추진 중 • 6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2%, 전년동월 대비 +2.7% 증가 • 마약 밀매 혐의를 받은 시날로아 주지사 로차, 3개월 휴직 후 복직 ↳ 로차는 여당 모레나당 소속, 77세 ↳ 멕시코 당국, 혐의 증거 발견 불가 판정했으나 미-멕시코 관계 악화 우려 지적
베트남 뉴스 3 건	• 베트남, 관세법 개정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 ↳ 관세당국의 위조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적발·압수 권한 확대 ↳ 5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을 지적재산권 우선 관심국으로 지정, 통상법 301 조 조사를 진행 중인 배경에서 추진

권역	요약
	• FTSE Russell, 베트남 신흥시장 격상 앞두고 인덱스 편입 증권 명단 공시(Hoa Phat·Vingroup·FPT) ↳ 철강·복합기업·IT 섹터의 주요 기업들이 편입 대상에 포함 ↳ 9월 정식 격상으로 약 60억달러(지수 추종형 약 15억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 예상
프론티어 뉴스 2건	• 루마니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6.50% 유지 결정 ↳ 8월 10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 12개월 인플레이션이 지난 6월부터 예상에 부합하며 하락 경로 진입 중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